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5 회차 , 성령, 2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성령에 대한 세션 25, 2부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신학적 주제 또는 신약에서의 성령에 대해 논의해 왔고, 우리가 말한 것을 요약함으로써 강조할 두 가지 사항을 논의해 왔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이 전적으로 신약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 저자들과 함께 신약에서 나타나거나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구약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역사적 구속 활동의 성경적 신학적 발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신약 전체에 걸쳐 성령이 항상, 신약 저자들이 때때로 그것을 생각하는 하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볼 것처럼, 구약에서 찾을 수 없는 다른 이미지와 언어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은 항상 새 언약과 관련하여 그의 영을 주고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항상 구원의 새 시대가 밝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고 나타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말씀과 예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말씀과 예언적 언어에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문학 코퍼스가 어떻게 성령의 주제를 발전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경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성령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대한 언급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위 일반 서신이나 서신에서 몇 가지 본문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성령의 기능과 요한 계시록에서 성령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이해해야 할 핵심 특징은 바울 문헌과 다른 곳에서 성령이 구원의 새 시대가 밝았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구약에서 약속한 구원의 새 시대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밝았으므로, 하나님의 새 창조, 그의 왕국, 새 언약 구원, 성령은 그것이 일어났다는 징조 또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텍스트와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성령이 기능하는 모든 방식을 탐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는 성령과 관련된 지배적인 초점이나 지배적인 주제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구약의 성취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본 몇 가지 사실에 비추어 말입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성전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그 중 몇 군데만 살펴보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성전의 성경적 신학적 주제와 연관되어 이루어지는데, 성전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면, 성전의 이미지와 성전의 언어가 사람들 자신에게 전달되어 그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 거주와 관련하여 구약성경 본문을 다시 살펴보지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6장과 16장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성전 모티브를 전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복수형을 사용하여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성전이나? 고린도전서 3장.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6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 무슨 일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가운데서 걸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저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했는데, 실제로는 에스겔 37장과 레위기 26장의 두 본문을 합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에 거하실 것을 예상합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계속해서 묘사하는 종말론적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예상합니다. 이제 저자는 그것을 고린도 신자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가운데서 걸으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연결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시작하는 긴 구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사야의 구약 예언 본문에 근거하여 회복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하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동료 시민이며 또한 그의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집안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안에서 주요 모퉁잇돌이 되십시오. 온 건물이 합쳐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언어를 교회에 적용했지만,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 둘은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사시는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장막, 성전 임재, 성전 거처가 되는 수단이며, 이제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5장과 18절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자는 5장 18절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게 만들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에스겔과 다른 구약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채우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지금의 영이, 특히 바울이 에베소서 2장과 20장과 21장과 22장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영이 교회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에베소서 5장 18절을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전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또는 성령을 통해 영광스러운 임재로 채우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되는 성령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은 하나님의 성전 임재가 이제 성령을 통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임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매개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 그의 백성과 함께 또는 그의 성전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다른 구약성경 본문과 일치하며,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영의 포괄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표징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가올 새 시대의 구원,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새 언약, 예를 들어 에스겔 36장, 그리고 이사야 44장, 요엘 2장,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여하신 것을 언급하는 모든 본문은 이제 그의 백성,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와 함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제 ,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종종 바울이 영을 언급하기 위해 다른 은유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가 인봉이나 세레 또는 다시 채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비록 에베소서 5장의 채우는 언어조차도 신약의 개념이 아니지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채우신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어는 구약성경에서 발견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동시에 바울이 성령을 구원의 새 시대, 새 언약, 예언적 문학에서 기대하는 새 창조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표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울이 성령이 기능하는 것을 보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1장 14절에서 13절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메시지 ,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장, 약속된 성령으로 표시되었다고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가 약속된 성령이라고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에게서, 어디서 약속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다시 한 번,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부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다시 발견되는 성령의 약속된 축복은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과 같고, 그리스도께서 요엘 2장의 성취로

그의 백성에게 부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약속된 성령입니다. 다시 한 번, 바울은 인장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안전과 보호와 유지를 의미하지만, 이 맥락에서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 그 자체입니다.

14절,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는 예치금, 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자들을 구속하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 때까지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때 기능했습니다. 부여된 성령은 우리의 미래 유업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 올 더 많은 유업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그 이상입니다.

로마서 8장과 23절, 본문을 몇 개만 살펴보자면, 22절은 에베소서에서 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우리의 미래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우리는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출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양자됨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성령은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보증으로 부여되고, 여기서 바울은 첫 열매라는 구약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성령은 더 많은 열매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여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미래 유산, 새 창조 안에서 우리 몸의 물리적 구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새 시대가 이미 존재 하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 보증으로 기능합니다. 심지어 미래에 나타나기 전에도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저는 이 구절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자가 "어떤 더러운 말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말고 오직 그들의 필요에 따라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날을 위하여 너희가 인치심을 받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제, 이 본문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과 13절의 유사점에 주목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미래 유업을 보장하는 인장으로 기능합니다. 이미와 아직 아닌 것의 균형을 주목하세요. 이미, 성령은 우리의 미래 유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여되었습니다.

둘째, 구약과의 연관성을 주목하십시오. 이사야 66장에서 성령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조사했을 때, 이사야 66장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성령, 즉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 세대와 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 66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조상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에게 부여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과 16절. 성령의 부여주심을 구원의 새 시대가 이미 밝았다는 표징으로 묘사하는 신약성서 본문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8장과 16절.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 속에 살도록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영은 구원의 때와 새 시대의 새벽에 대한 구약의 약속의 성취에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은 여러분을 아들로 입양하게 했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제 시작된 구원의 새 시대에 참여했다는 표징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보장으로 기능하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징이나 지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별개의 범주가 아니지만 첫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여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로마서 8장 16절에서 끝낸 본문은 성령의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며, 즉 영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정체성 표시입니다. 우리는 방금 로마서 8장 16절과 8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영역에 있지 않고 영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영역에 있으며,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일시되어야 하며, 이제 새벽에 밝아온 하나님의 새 시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인데,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추가 참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갈라디아서의 주장에 결정적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일의 일부는 들어온 소위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다루는 핵심 질문 중 하나는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교도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에 답하고 있습니다. 참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남성의 경우, 그것은 할례를 의미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용어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든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어야 하거나, 율법의 정체성 표시를 스스로에게 떠맡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과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은 이방인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편을 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유대주의자들과 동조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절에서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만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영으로 시작한 후에 지금은 육신으로 끝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것을 헛되이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라면 성령을 받음으로써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5절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영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들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받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신분 표시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구약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대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약 율법을 지키는 것과 연관해서 받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인들이 그것을

받으면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약속된 성령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약속된 성령으로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구원의 새 시대의 시작을 보장하거나 나타냅니다. 만약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표시로서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정체성 표시로 기능합니다. 성령은 아들됨과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정체성 표시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하나님의 참 아들 또는 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다시 같은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다음 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아들됨의 언어는 구원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신약 주제입니다.

아들됨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입양아였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나 보장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4장 6절, 너희가 그의 아들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으니,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영이로다. 내가 보고 있는 NIV는 영을 대문자로 써서 이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신 구약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여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구약의 약속된 성령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점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에게 성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동일시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약의 약속을 다시 살펴보면, 바울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성령의 축복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에서 쏟아지는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다시 위로 돌아가서 1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된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그 이후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와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율법 아래서 구속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부여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약속된 성령입니다. 사실, 이사야 44장으로 돌아가면 비슷한 동일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땅에 물을 붓고,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을 구약의 성령에 대한 약속과 관련하여 읽었고, 물을 붓는 것과 성령을 붓는 것의 연관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때때로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땅에 물을 붓고 마른 땅에 시냇물을 붓고, 내 영을 네 자손에게 붓고,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붓고,

그래서 지금, 흥미롭게도, 그 언어는... 그리고 돌아가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나의 자손과 후손의 언어를 주목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것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와 구약의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의 후손에게 주어질 축복, 즉 성령의 부여주심과 동일시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제 구약의 성취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며,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사야 44장과 같은 본문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을 다시 한 번 발견합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에스겔 36장에서 약속된 바에 따라 시작될 새 언약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이 성령을 갱신과 재생 또는 중생과 연관시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는 목회서신에 대한 많은 참조 사항을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하는 씻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관대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성령을 부어주는 언어에 주목하세요. 이 언어는 다시 한 번 구약성경 본문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씻음과 거듭남 또는 거듭남과 새롭게 하는 언어의 연관성에 주목하세요.

이 모든 것이 구약성경의 언어를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약속된 갱신, 거듭남과 갱신을 가져오는 약속된 성령의 부어주심, 에스겔 36장과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한 디도서 3:5에서도 예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승영되신 주님과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가 그의 백성을 구속하셨으므로 그가 지금 그의 백성에게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이 구원과 관련된 그의 사역에서 새로운 창조를 개시한다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것은 성령이시며, 그는 새로운 창조의 부활 생명을 가져오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본문이 많이 있지만,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46절,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의 부활 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날 하나님 백성의 육체적 부활에 앞서 새 창조의 영적 또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함으로써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새 창조를 시작하고, 구약성경에서 약속된 새 창조를 시작하면서 이미 새 창조의 영적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주었고, 바울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미덕으로 그 삶을 공유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예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성령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성령을 기독교 윤리와 관련하여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새 언약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로 돌아가 보면 새 언약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의 백성이 그의 법을 지키고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새 언약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이 서신을 통해 악덕과 덕목 목록과 다른 명령과 명령의 형태로 내린 모든 명령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생산해 내는 것은 성령이라고 항상 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잘 알려진 구절에서 이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자유를 육체의 탐닉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온 율법은 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는 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성령에 거스르는 것을 원하고 성령은 육체에 거스르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서로 갈등이 있느니라.

18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행위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 등이라.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착함,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런 것에 대하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한, 영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섹션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는, 이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순종, 순종의 신학적 주제, 율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바울이 이 섹션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구약 자체로는 육체를 이길 수 없었고 궁극적으로 육체의 행위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새 언약의 영으로, 새로운 마음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는 것만으로,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고 기대했던 삶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삶을 살 수 있고, 바울이 말했듯이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사는 것만으로 그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약성경에 약속된 영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 특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새 언약의 약속에 비추어 읽지 않는다면 불의에 대한 이 본문을 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가 구약성경의 법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6장이나 5장은 우리에게 할 일이 없거나 순종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을 면제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6장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면서, 그들이 그 명령에 따를 수도 있고, 따를 수 없다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 새 언약의 영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즉, 율법이 가리키고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종류의 삶을 말입니다. 신약의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일반 서신에 대한 몇 가지 언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즉, 바울의 서신과 요한 계시록 사이의 모든 것을 종종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많은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기능하는 방식 중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흥미롭게도, 저자가 종종 성령이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할 때, 그는 종종 그것을 성령의 말씀에 돌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 성령의 말씀, 9장 8절의 주제는 성령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지상 장막의 배치와 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만 내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과 사람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는 논의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자는 성령께서 이를 통해 지성소로 가는 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옛 언약 하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에서도 성령께서 더 큰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논의해 온 맥락에서 성령에 대한 가장 분명한 언급 중 하나는 성령께서 구원의 새 시대가 밝아졌다는 표적이며, 새 창조가 이제 성취되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6장 4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깨달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의 선함을 맛본 자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다른 곳에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모든 것, 즉 깨달음을 얻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의 선함을 맛보고, 다가올 시대의 권능을 맛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 본문이나 구약 성경 주제를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성령은, 6장에서도 저자는 성령의 부어짐이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구약 성경의 약속된 성령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가지 참조 사항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까다로운 해석적 문제가 많은 본문이고, 몇 가지 예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성령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은 뒤로 돌아가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들이 1장 전반부에서 묘사한 이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말한 선지자들, 곧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의 깊게 살폈으며,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메시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영광을 예언할 때 가리킨 때와 상황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것들을 말할 때, 그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천사들도 이런 것들을 살피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주목하세요. 첫째, 성령을 예언, 예언적 발언과 다시 한번 연관시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보내진 성령에 대한 언급은 제 생각에 구약성경에서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요엘 2장과 우리가 살펴본 다른 본문들이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본문은 우리가 탐구할 시간이 없지만, 이 흥미로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 가서 전파하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룰 시간이 없지만,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약의 다른 곳에서 영이 행한 일과 일치하게,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1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나신 후에 그는 가서 갇힌 영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아마 좋은 번역일 겁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살아났다는 언급은 예수 자신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육체적으로 부활시킴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삶, 다가올 시대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 서신 중 일부에서도, 우리는 다른 서신을 살펴볼 수 있고, 성령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구속 스토리라인의 일부로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발견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제 구약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여 구원의 새 시대와 그 축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표시로 성령을 부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멈추고 싶은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요한계시록을 성령에 대한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로 성령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추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종종 그 책의 종말론과 그것이 세상의 종말과 종말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에 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종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성경, 신약에서 가장 풍부한 그리스도론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시록 전반에 걸쳐 성령에 대한 수많은 언급을 발견합니다.

즉, 성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성령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적 계획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이제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시입니다. 시작점은 요한 묵시록이 저자인 요한이 성령 안에 있다는 여러 언급으로 구두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장과 10절, 4장과 2절, 17장과 3절, 21장과 10절을 적어두고 나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 요한이 환상을 보는 맥락에서 영 안에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저는 1장과 10절에서 첫 번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고, 그때 나는 내 뒤에서 큰 음성을 들었고, 그는 12절에서 누가 말하는지 보려고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과 2절, 17절, 3절, 21절, 10절의 다른 모든 참조 사항을 살펴보면, 모두 요한이 환상을 본 맥락에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 이러한 환상이 요한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환상은 그에게 오거나 성령에 의해 그에게 전달되거나 그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동안 전달됩니다. 제 생각에, 이 언어는 아마도 에스겔의 책에서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이 계시록 전체에 걸쳐 에스겔과 이사야, 다니엘과 같은 다른 구약성경 책들, 특히 에스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저술과 책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1장과 22장에서 요한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전체에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성령이 에스겔을 다른 것들을 보거나 다른 환상의 맥락에서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스겔서 2장 2절이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에스겔서 2:2, 그가 말하면서, 그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고, 그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2장 1절,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가 말하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고, 그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에스겔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본 맥락에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고, 그는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성령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또한 자신의 환상에 성령에 대한 언급을 덧붙인다. 나는 그의 예언적 본문과의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환상이 구약의 예언적 환상과 같은 맥락, 같은 맥락에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에제키엘의 망토를 자신에게 짊어진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영감을 준 동일한 영이 이제 요한의 환상에도 영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요한에게 전달된 환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말하는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2장과 3장은 실제로 기술적으로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예언적 메시지 또는 예언적 선포이며, 요한이 교회들에게 전달해야 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어인 예언적 연설을 모델로 합니다.

그 일곱 가지의 각 끝에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저는 일곱 가지 메시지 각각에 반복되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2장 11절.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흥미롭게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들에게 이 일곱 가지 메시지 형태로 전달되는데, 결국 성령의 말씀이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 메시지를 통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경청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부어지는 마지막 시대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흥미로운 언급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영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듣는 사람은 오라.
 목마른 사람은 오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의 무료 선물을 가져가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이 말씀하십니다. 영은 교회에 말씀하시고 응답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그것과 관련하여 계시록에서 예언의
 영에 대한 언급도 발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언은 성령의 영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다른 두 가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요한의 예언적 계시와 그의 묵시적 환상에 영감을 주신 성령,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입니다. 저는 다른 두 가지 참고
 자료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매우 명확합니다. 다른 하나는 암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장 4절부터 우리는 이 매우 흥미로운 언급을 발견합니다.

요한 계시록 1장 4절. 요한아, 아시아 지방의 일곱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전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에게서. 요한이 4장과 5장에서 본 보좌실의 서두에서
 같은 언급을 볼 수 있다. 4장에서 보좌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났다.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우리는 5장 6절에서 같은 것을 봅니다. 요한이 어린 양에 대한
 환상에서 그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채 서 있는 것을 보고, 보좌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곱 영에 대한 이상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 도대체 이들은 무엇인가, 또는 이 일곱 영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단지 천사적 존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이 아마도 천사적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1장 4절에서 처음 언급된 일곱 영에 대한 언급이 체계 신학의 용어로 삼위일체 공식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존재했고, 존재하고, 앞으로 올 일곱 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에 대한 언급은 아마도 1장과 4장, 5장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일곱 영을 언급함으로써 저자는 실제로 일곱 개의 문자적인 별개의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일곱은 완전함과 완벽함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일곱 영이 하나님의 영의 완전함, 완벽함,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능력을 상징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요한은 두 증인의 환상을 보았고, 저는 많은 것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으며, 왜 그런지 변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령에 대한 두 가지 흥미로운 언급입니다.

첫 번째는 11장 11절에서 두 증인이 순교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영 또는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와 그들을 일으키는데, 이는 사실 에스겔 37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살을 입는 마른 뼈의 골짜기와 하나님의 영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와 그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또는 에스겔 37장의 성취에 따라 그들의 고통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순교한 백성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을 옹호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에스겔 37장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성령이 생명을 일으키고 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두 증인이 등잔대로 식별됩니다. 이 증인들을 등잔대로 식별하는 11장의 언어는 스가랴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가랴 4장에서 흥미로운 본문 중 하나는 6절인데, 스가랴는 그것은 힘이냐 권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가 스가랴 4장을 암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가능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과 권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흥미롭게도, 그들은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스러운 충실한 증거를 통해서도, 스가랴 4장의 하나님의 영,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힘으로가 아니고, 권능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그의 두 증인이 세상에서 그의 목적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요한이 가진 비전에 영감을 불어넣고, 교회를 순종하도록 부르고, 심지어 교회의 고난받고 충실한 고난받는 증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성령께서 일곱 배의 강력하고,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성취하시어,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세션 25, 2부입니다.